

[ 열린의정! 으뜸의회! ]

# 2018년도 임실군의의회 국외연수 보고서

□ 국외연수 개요

- 기 간 : 2018. 8. 28.(화) ~ 9. 5.(수) 【7박 9일】
- 방 문 국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인 원 : 13명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 실 군 의 회



# 목 차



I. 연수개요 .....	1
II. 연수방문국 주요현황 .....	3
III. 주요방문지별 수행사항 .....	9
1. 노르웨이 .....	9
2. 스웨덴 .....	17
3. 핀란드 .....	23
IV. 시사점 및 발전방안 .....	30
V. 연수후기 .....	33

# I. 연수개요

## 1 연수목적

- 북유럽 선진국가의 지방자치 및 문화관광시설, 도시기반시설, 선진노인복지정책 등의 운영 관리 실태를 체험하고, 실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 마인드 배양
- 선진 우수사례를 발굴·접목하여 향후 발전적인 의회 운영 및 지역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연수현황

- 방 문 국 : 북유럽 3국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연수기간 : 8. 28.(화) ~ 9. 5.(수) 【7박 9일간】
- 연 수 자

연번	직위(급)	이름	연번	직위(급)	이름
1	부의장	김 왕 중	8	의회사무과장	강 민 정
2	운영행정위원장	장 종 민	9	전문위원	김 치 환
3	산업건설위원장	박 영 자	10	의사팀장	박 영 건
4	의 원	진 남 근	11	의사팀원	이 국 승
5	의 원	황 일 권	12	의사팀원	정 미 리
6	의 원	이 성 재	13	의사팀원	장 광 미
7	의 원	이 명 로			

### 3

## 연수 세부일정

일 정		연수 세부 일정	비 고
제1일 (8.28)	인천 모스크바 오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출발(13:35)</li> <li>▶모스크바 국제공항 도착(17:00, 경유)</li> <li>▶노르웨이 오슬로 도착(18:25)</li> </ul>	
제2일 (8.29)	오슬로 릴레함메르 빈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슬로 현지문화탐방</li> <li>◦ 왕궁, 조각공원, 카를요한슨거리</li> <li>▶릴레함메르 이동</li> <li>◦ 동계올림픽 개최지 견학, 피사 호수 탐방</li> <li>▶빈스트라 이동</li> </ul>	
제3일 (8.30)	빈스트라 게이랑에르  레르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이랑에르 이동</li> <li>■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체험</li> <li>◦ 게이랑에르 피요르드 탐방</li> <li>■ 시설견학</li> <li>◦ 뵈이야시 빙하박물관</li> <li>▶레르달 이동</li> </ul>	
제4일 (8.31)	레르달 플롬  베르겐  게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롬 이동</li> <li>■ 플롬시 견학</li> <li>◦ 플롬열차 체험</li> <li>■ 베르겐시 문화유산자원 탐방</li> <li>◦ 브뤼겐거리, 재래시장(어시장) 방문</li> <li>▶게일로 이동</li> </ul>	
제5일 (9. 1)	오슬로  칼스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방문</li> <li>◦ 오슬로 시청 방문</li> <li>▶스웨덴 이동</li> <li>■ 도시정비 시설견학</li> <li>◦ 친환경적인 신시가지 견학</li> </ul>	
제6일 (9. 2)	스톡홀름 (스웨덴)  헬싱키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방문</li> <li>◦ 스톡홀름 시청, 시의회 방문</li> <li>■ 스톡홀름 문화탐방</li> <li>◦ 대성당, 바사호 박물관</li> <li>▶헬싱키 이동</li> <li>◦ 스톡홀름-헬싱키 구간 유람선 탑승(17시간)</li> </ul>	
제7일 (9. 3)	헬싱키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방문: 에스포 노인요양시설(Villa Tapiola)</li> <li>■ 헬싱키 도시계획시설 및 문화탐방</li> <li>◦ 에코비키시, 만네르하임 거리, 원로원광장, 시벨리우스공원</li> <li>■ 헬싱키 전통시장 방문 : 마켓광장</li> </ul>	
제8일 (9. 4)	헬싱키 모스크바 (경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헬싱키 공항으로 이동 / 헬싱키 출발(13:25)</li> <li>▶모스크바 국제공항 도착(15:20) / 출발(18:55)</li> </ul>	
제9일 (9. 5)	인 천	▶인천국제공항 도착(09:40) / 귀가	

## Ⅱ. 연수 방문국 주요현황

### 1 노르웨이

#### □ 위치



#### □ 일반현황

수 도	오슬로(Oslo)
면 적	323,802km <sup>2</sup> (한반도의 1.5배)
인 구	약 5,320,000명 (118위)
민 족	노르웨이인 96.3%, 덴마크인 0.4%
언 어	노르웨이어 * 북크몰(Bokmål)과 뉘노스크(Nynorsk)라는 표준어가 둘 있음
종 교	루터복음교(74%)
화 폐	크로네 (NOK)
기 후	한대성기후

## □ 정치현황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내 각	연 정
의회구성	총 169석, 2017.9 총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정 : 보수당(45석), 진보당(27석), 자유당(8석)</li> <li>- 야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계열 : 기독교민주당(8석), 중앙당(19석), 녹색당(1석)</li> <li>• 사회주의계열 : 노동당(49석), 사회주의 좌파당(11석), 적색당(1석)</li> </ul> </li> </ul>
주요인사	- 국가원수 : Harald V(하랄 5세)국왕(91.1 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 : Erna Solberg(에르나 솔베르그, 13.10, 보수당)</li> <li>- 외교장관 : Ine Erisken Søreide(이네 에릭슨 썬라이데, 17.10, 보수당)</li> </ul>

## □ 기타 특징

### ○ 주요경제지표

- GDP : 3,920억불 \* 1인당 GDP : 73,615불
- GDP 성장률 : 1.1%
- 실업률 : 4.2%
- 교역 : 수출 828억불 / 수입 724억불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59년 3월 2일
- 주노르웨이 대사관 개설 : 1972년 12월
- 교민현황 : 1,043명(2017년 기준)
- 입양한인 약 6,500여명

### ○ 인물 : 뭉크(미술인), 그리그(음악인), 로알 아문센(탐험가)

###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권한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

## 2 스웨덴

### □ 위치



### □ 일반현황

수 도	스톡홀름
면 적	450,295km <sup>2</sup> (한반도의 약2.4배)
인 구	약 9,960,000명 (90위)
민 족	게르만족(99%), 랍족
언 어	스웨덴어(svenska)
종 교	87%는 루터교 소속인 스웨덴 교회(Svenska kyrkan) 신자
화 폐	크로나 (SEK)
기 후	해양성기후
주요도시	예테보리(Gotebory)

## □ 정치현황

국가형태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내 각	중도우파 2당 연정
의회구성	총349석, 14.9 총선 결과(~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정 : 사민당(113석), 환경당(25석)</li> <li>- 야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계(보수당(84석), 중앙당(22석), 자유당(19석), 기독교민주당(16석)/스웨덴민주당(49석), 좌파당(21석)</li> </ul> </li> </ul>
주요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원수 : Carl XVI Gustaf 국왕(73.9 즉위)</li> <li>- 총 리 : Stefan Löfven(14.10 취임, 사민당)</li> <li>- 외교장관 : Margot Wallström(14.10 임명, 사민당)</li> </ul>

## □ 기타 특징

- 주요경제지표
  - GDP : 5,109억불
  - \* 1인당 GDP : 51,600불
  - GDP 성장률 : 3.2%
  - 실업률 : 6.5%
  - 교 역 : 수출 1,355억불 / 수입 1,362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59년 3월 11일
  - 주스웨덴 대사관 개설 : 1963년 7월
  - 교민현황 : 3,174명(2016년 기준)
- 인물 : 알프레드 노벨(노벨상 창시자)

### 3

## 핀란드

#### □ 위치



#### □ 일반현황

수 도	헬싱키
면 적	338,145km <sup>2</sup> (한반도의 약1.5배)
인 구	약 5,520,000명 (118위)
민 족	핀란드인 93%, 스웨덴인 6%
언 어	핀란드어(89%)와 스웨덴어가 공용어로 지정
종 교	개신교(루터교)가 89%
화 폐	유로화 (EUR)
기 후	온난성기후

## □ 정치현황

정부형태	이원집정제(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내 각	중도당, 국민연합당, 푸른개혁당 3개 정당간 연정 구성
의회구성	임기 4년, 총200석 ('17년 현재)
	- 여당연합(106석) : 중도당(49), 국민연합당(38), 푸른개혁당(19) - 야당(94석) : 사민당(35), 핀란드인당(17), 녹색당(15), 좌파연합(12), 스웨덴인당(10), 기독교민주당(5)
주요인사	- 국가원수 : Sauli Niinistö 대통령(국민연합당, 18.1월 재선) - 총리 : Juha Sipilä(중도당, 15.5월) - 외교장관 : Timo Soini(핀란드인당, 15.5월)

## □ 기타 특징

### ○ 주요경제지표

- GDP : 2,369억불
- \* 1인당 GDP : 43,124불
- 실질 경제 성장률 : 1.5%
- 실업률 : 8.8%
- 무역규모 : 수출 518억 유로 / 수입 549억 유로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73년 8월 24일
- 주핀란드 대사관 개설 : 1973년 8월
- 주한 핀란드 대사관 개설 : 1978년 11월
- 교역규모 : 수출 : 2.97억불 / 수입 : 9.75억불
- 교민현황 : 611명(2017년 기준)

### ○ 인물 : 시벨리우스(음악가), 알바 알토(건축가)

### Ⅲ. 주요 방문지별 연수사항

#### 1 노르웨이 연수내용 및 시사점

##### □ 주요 방문기관 및 현지문화 시찰

###### 오슬로 시청

- 노르웨이는 ‘북쪽의 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초원이라는 의미의 오슬로(노르웨이어: Oslo rådhus)는 노르웨이의 수도이며, ‘바이킹의 수도’라는 명칭도 듣고 있다.
- 오슬로 시청사는 오슬로 창립 900주년을 기념하여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로 1931년에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2차 세계 대전의 발생과 함께 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재개된 공사는 1950년에 마무리 되었다.
- 건물 1층과 2층에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는 거대한 유화와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예술가 뭉크(Munch)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비롯해 유명 작가들이 헌정한 수많은 벽화와 그림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며, 벽화에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바이킹 신화, 문화와 역사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 오슬로 시청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부문 노벨상은 모두 노벨의 모국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선정하고 수상한다. 유독 노벨 평화상만을 오슬로 의회가 선정하고 수상하는데 이는 노벨의 유언 때문이라고 한다. 매년 12월 이곳 중앙 홀에서 수상식이 거행된다.
- (시사점) 주요 도시의 핵심은 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건축작품화, 내부 전시관 활용, 예술작품을 활성화하여 관

광객을 모객하는 것은 북유럽 일대의 도시에서 중요한 활용방안으로 보여짐.



[국회의사당 앞]



[시정 내부]

## 비겔란트 조각공원

-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천재 조각가 구스타브 비겔란트(Gustav Vigeland, 1869~1943)의 조각 작품을 모아놓은 곳으로 그의 예술양식은 초상 흉상과 부조, 감정을 보여주는 자연주의적인 얼굴의 표현이고, 중세적인 모티브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단계를 주제로 하고 있다.
- 비겔란트 공원이라 불리게 된 오슬로에 위치한 총면적 32만3700㎡의 프로그네르 공원(Frognerparken)은 비겔란이 공원을 장식하기 위하여 총 200점이 넘는 조각품들 모두 디자인 했기 때문에 이 공원은 비겔란트의 노천 전시장이 된 것임.
- (시사점)당시의 이념이나 시대상을 미술작품으로 형상화는 대형 조각상은 충분한 지역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상품화 내용으로, 관내 출신 저명한 조각가에 대한 조각공원 또는 사선대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상징화된 작품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었다.



[공원 입구]



[공원 전경]

##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개최지

- 릴레함메르는 노르웨이 남쪽 내륙의 오픈란 주에 있는 도시로,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이다.
- 여러 시설 중에서 오로라를 이미지한 세계 최대의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이 아름답고, 스키점프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도 의미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차량 및 도보 이동시 동네 곳곳에 체육시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 (시사점) 동계올림픽이 끝난지 25년이 경과하였어도,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스키점프대 운영 등 지속성 있는 체육시설의 관광활성화 방안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이를 토대로 관내 섬진강생활체육공원 등 주요 체육시설의 관광객 활용방안 연계대책이 필요하다.

## □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관광 자연화 사례 탐방

### 게이랑에르 피요르드

- 세계 문화 유산에도 등록된 게이랑에르 피요르드는 창처럼 내륙으로 깊이 파고 들었다는 뜻이다. 이름에 걸맞게 광대하게 V자로 침식한 지형은 우리나라 산과 같이 뾰족한 모양을 만들고 빙

하는 U자 모양으로 침식하면서, 이 침식된 곳에서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침투한 결과 이렇게 장엄한 피요르드를 만들어낸다. 이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요르드에 속하며 1,500m 산 사이에 16km의 계곡과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 절벽에서 폭포를 이루는 절경을 연출 한다.

- (시사점) 세계자연유산으로 세계 최대규모이자 뷰포인트인 송네 피요르드의 핵심지역이다. 헬레쉴트에서 게이랑에르에 이르는 페리 유람선이 일품으로 특히 게이랑에르항을 중심으로 한 산악 지역은 북유럽 여름철 여행의 백미로 꼽힌다. 관내 자연경관이 뛰어난 옥정호 수변관광거점, 성수산 힐링관광거점 등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관광활용방안이 필요하다.



[피요르드]

[안내 현황판]

## 플롬열차

- 세계 10대 아름다운 노선 중 하나로 뽑힌 플롬 산악열차는 아름다운 노르웨이의 비경을 뚫고 달리는 관광열차다. 약 20km 거리를 50분동안 달리는 짧은 구간을 운행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노선으로 인기가 많다. 그 이유는 지금 으로부터 6000년 전 빙하기와 간빙기로 인해 노르웨이에 만들어진 피요르드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험준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시속 40km/h 이내로 달리며, 약 한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멋진 협곡을 따라 주

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 중간에 간이역에서 잠시 정차하여 곳곳에 숨어있는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열차를 타고 가다보면 플롬의 작은 마을을 볼 수 있는데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 (시사점) 천혜의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옥정호를 중심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특정한 컨셉으로 약 두 시간 동안 광활한 호수에 흠뻑 동화될 수 있는 유람선 등 관광코스 개발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전경]



[한국어 지원 안내문]

---

## 빙하박물관

---

- 1991년 5월 31일 개관한 빙하박물관은 빙하 및 기후변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으며, 이 박물관은 유럽대륙에서 가장 큰 빙하인 요스테달 빙하 아래의 계곡에 세워진 빙하를 닮은 독특한 형태의 현대 건축물이다. 주재료로 콘크리트와 유리·목재를 이용하였으며, 기울어진 외벽과 다양한 형태의 창문으로 장식되어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 (시사점) 특수박물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가질 수 있었다. 뫼이야 빙하를 직접 탐방한 생생한 영상을 보여주고, 빙하를 활용한 수력발전소 및

빙하체험 전시내용 등을 매우 사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안내 임실치즈테마파크에도 치즈를 매개로 한 사례를 적용하면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전경]



[안내 동영상]

## □ 노르웨이 도시정책

### 베르겐시

- 인구 약 23만명의 베르겐은 노르웨이에서 두번째 큰도시로 1070년 올라프 쿨레왕이 도시의 기초를 세운 후 12~13세기까지 노르웨이의 수도였으며, 현재 노르웨이 최대 항만도시로 우리나라의 부산과 매우 흡사하다.
- 베르겐의 건축물은 1702년 화재 이후 복원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음. 주변 환경에 잘 조화되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며 북유럽에서 오래된 큰 규모의 무역항으로 전통적인 목조 가옥이 많아 옛 도시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 1955년 브뤼겐 지역에 발생한 화재는 도시의 1/3을 파괴하며 도시 전반에 피해를 남겼는데 화재 이후로 남아 있는 58채의 가옥에 대해 복원이 이루어졌고,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시사점)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의 지역사회발전 및 많은 관광객 유치로 도시브랜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며, 세계문화유산도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역사지구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베르겐시에서 60% 출자한 공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에 지분을 주어 상업적기능을 부여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음.

---

### 베르겐 어시장

---

- 베르겐 항구 앞의 광장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부터 노천 시장이 선다.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이제 막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과 야채, 과일, 꽃 등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며, 훈제연어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판매한다.

---

### 오슬로시 환경도시 프로젝트

---

- 1960년대 개인 승용차 판매제한이 철폐되면서 승용차가 급증 새로운 도로의 건설과 구 도로의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됨
- 거리에서의 소음, 공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삶의 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폐교가 증가하자 오슬로시는 1993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환경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며, 가장 먼저 구시가를 통과하던 주요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재조정하고 도로폭과 차선 축소, 인도를 확장하였으며, 자전거 도로를 신설함
- 자연스럽게 거리에는 차량이 줄어들었고 소음과 공해가 감소되었음은 물론 중세공원을 신설하지만, 1970~1980년대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 재개발이 감소하게 됨
- 이에, 1989년 지역과 건물을 향상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청소와 정비, 미화작업부터 착수하여 강과 바다, 숲으로 연결되는 녹색길 (Greenways)을 조성하였고 도로 주변에는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바다로 이어진 터널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의 녹지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오늘날의 환경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 **보전지역 내 녹지정책, 노르드마크카**

---

- 노르드마크카는 오슬로시의 외곽녹지로서 스포츠, 농업 및 임업 등 일부를 제외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 지역으로 지정됨
- 목재 생산을 위한 주요산림이자 시민의 휴양지인 마르카는 피요르드와 함께 노르웨이의 역사, 문화, 생활, 도시를 표현하는 공간
- 전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이나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되며 전 시민이 이와 같은 규제에 동의하고 있음

## □ 방문기관

## 스톡홀름 시청 및 시의회

- 노벨상 수여장소로 유명한 스톡홀름 시청은 1911년~1923년에 스웨덴 출신의 건축가인 라그나르 오스트 베리(Ragner Ostberg)가 설계하여 건립되었다. 스톡홀름 시청은 국가적 낭만주의 스타일로 시공된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이다. 건축 당시 라그나르 오스트 베리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궁전들에서 영감을 받아 이 건물을 설계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듯 시청사에는 정원(Borgargården)과 블루 홀의 두 광장이 있다. 시청은 스톡홀름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지금도 최초의 용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시청사에는 회의와 파티를 위한 행사장도 마련되어 있다.
- 대회의실은 스톡홀름 시의회 소속인 101명의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 하는 곳이다. 회의는 보통 방문객들에게 공개되었다고 하며, 연수단이 참석한 날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갤러리의 한쪽 벽면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반대쪽에는 언론인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칠한 빔 천장 앞쪽 부분의 형태는 바이킹 시대의 룡 하우스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진 것이다.
- 스웨덴의 의정활동 및 행정제도는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며 내각은 의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회가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선출하고, 공리 및 내각은 의회에 대해 국정의 책임을 짐. 스웨덴 총선은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음. 따라서 보통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총리를 배출하는 연립정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시의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의석마다 의원 명패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스웨덴 의회는 시의회와는 달리 교섭단체별로 모여있지 않고,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자리를 배치하게 되므로 명패도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놀랐다.
- (시사점) 스톡홀름 시청은 건립 시 재정부족으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되어 시민들에게 공지를 주고 있으며 노벨상 시상식장으로 활용되는 두 청사 모두 관광자원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 시민들을 위한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내주어 노벨상 시상식 및 무도회장, 콘서트, 전시회는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예식장 등 시민들의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시의회 견학]



[시청 내부]



[시의회 현황 정취]



[시청 견학]

## □ 스웨덴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지방정부의 구성) 지방정부는 4년마다 총선과 동시선거로 선출하는 기초의회와 주의회를 통해 구성한다. 각 의회는 지방정부의 위원회(집행위원회 포함)를 선출하고, 예산안과 지방소득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차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구를 감시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위한 기구와 절차등을 정하기도 한다.
- (지방의회의 규모)지방의회의 규모는 유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초의회의 경우 최소 31명에서 최대 101명(스톡홀름시)으로 구성되며 5명, 중간규모의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41~45명선이다. 주의회도 주유권자에 따라 규모가 다른데, 47명에서 149명(인구 100만이상의 스톡홀름, 스코네 , 베스트라예탈란드주)까지 다양하며, 중간 규모는 84명선이다.
- (선출방식)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들이 지방정부의 일상적 행정업무를 조정하면서 이끈다. 집행위원은 지방의원이 아닌자 중에 (주로 지역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의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집행위원회 외에 필요한 일반위원회를 구성한다. 일반위원회는 내각제 국가의 부처(ministry, 部)에 해당되고, 일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에 해당하지만, 스웨덴 지방정부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일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장관에 해당하는 일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 (지방분권)지방정치 특징은 복지, 교육, 보건의료 분야에 관해 대부분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었다.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가 중앙 정부의 예산과 비슷한 수

준으로 높고, 각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 측면에서 자율성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 □ 주요 현지 문화시찰

### 바사호 박물관

- 구스타프 2세 시대인 1625년에 건조되어 1628년 8월 처녀항해 때 스톡홀름항에서 침몰한 스웨덴 왕실의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곳이다. 전함이 침몰된 이후 1956년에 해양 고고학자인 안데스 프란첸(Anders Franzen)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발견 후 333년만인 1961년에 인양되었다.
- 1962년 임시 박물관이 문을 열어 이곳에서 1979년까지 보호액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1990년 새로이 바사 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스웨덴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화 전함으로 침몰한 이유는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포를이 배에 실고자 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의 건조 기술로는 경험이 없었던 큰 선박을 건조해야 했고, 상부하중이 너무 커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하고 돌풍에 침몰하고 만 것이다.
- 총길이 69m, 최대폭 약 11.7m, 높이 52.2m, 배수량 약 1,210t, 적재 대포 64문, 탑승 가능인원은 450명(300명의 군인)이다. 바사호의 인양과 함께 당시의 목조품, 배안의 조각상 등과 더불어, 당시 선원들의 유골과 유품들이 함께 발견되어 17세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박물관은 총 7층으로 구성되어 바사호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박물관 내부]



[전시 배 관람]

---

## 실야라인

---

-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운항하는 대표적인 크루즈라인으로 스톡홀름과 핀란드 헬싱키 구간을 실야 세레나데와 실야 심포니, 두 쌍둥이 배가 운항을 하며, 최대 승객 2,800여명이 탑승 가능한 58,000톤급의 대형 유람선이다. 선내에는 레스토랑을 비롯한 각종 바와 면세점, 카지노, 카라오케, 클럽, 사우나, 미용실 등 각종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 □ 스웨덴 친환경 도시정책

---

### 칼스타드

---

- 스웨덴 중남부의 베름란드 주의 중심도시인 칼스타드는 클라르강 어귀의 베네른 호의 북쪽 기슭과 텅발라 섬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그곳은 의회의 모임인 텅(ting)을 따서 텅발라로 불렸으나, 1584년 이곳에 자치시로 칙허를 내린 카를 9세를 기념하여 개칭되었다.
- 시내 중심부에 있는 광장은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광장 주변으로 카페 등이 즐비하여 시민들의 모임장소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교통 신호등이 있는 곳에 공용쓰레기 통이

설치되어 깨끗한 도심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

## 생태도시, 함마르비

---

- 스톡홀름시 외곽 5km 지점에 위치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선수촌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올림픽 유치가 무산되자 자연과 조화된 생태도시로 개발되었다. 최대 12,000세대 수용이 가능하게 조성되었으며, 부지는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은 건설회사에서 건설 후 임대 및 분양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였다.
- 개발기간은 1996년 착공해 전체지구를 2015년에 완공하였으며, 기존 수변과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변도로를 조깅과 산책로로 구성하였다.
-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연순환모델 수립 적용, 에너지 사용 최소화, 수자원의 효율성 이용, 하수로부터 에너지 생성, 재생가능한 건축자재의 사용, 오염된 토양 및 호수의 복원, 주민들 환경의식 고취와 살기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목표로 개발하였다.
- (시사점)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여 친환경 개발이 미진한 우리나라에 비해 스웨덴은 도시개발 목표를 환경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자체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친환경적 자체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 3 핀란드 연수내용 및 시사점

#### □ 공식 기관방문

##### 에스포 노인요양시설

#### ○ 운영 및 현황

- 명 칭 : Villa Tapiola
- Villa Tapiola는 핀란드 에스포(Espoo)의 북쪽 타피올라(Tapiola) 북부에 자리 잡은 고급 개인 주택으로, 기억장애(노인성치매)가 있는 환자의 독특한 서비스를 전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양로원시설과 유사하며, 치매성 노인환자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설로 설계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편안한 녹색환경이 펼쳐진 안뜰 정원이 인기다.
- 매년 에스포시 및 카이라이넨지역협의회 등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 표창을 받는 등 매우 모범적인 시설운영을 보이고 있다.
- 입소자 현황 : 24개의 객실에는 30여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인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설 종사자수는 총 30명으로, 주요 노인관리 프로그램으로는 취미활동, 건강생활, 재활치료, 물리치료, 발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기관이므로 1달 이용료는 1,400유로임.
- 인테리어 디자인 및 연구소 활동은 상주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해 고안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 ○ 최상의 노인 간호 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의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유사하며, 의료행동장애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종사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함은 물론 다양하고 맞춤형된 간호 서비스로 다목적 치료를 하고 있다. 특히 기억력 환자의 긍정적인 기억을 자극하고 디지털화한 회고록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신 건강, 좋아하는 음악, 사진 등을 통해 일상 생활을 기억할 수 있다.
- 환자의 친인척 방문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화된 보살핌, 맛있는 음식 제공 및 편안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 노인 간호 네트워크 프로젝트 공유

- 핀란드는 노인 간호 네트워크 ( EFEC-Ecvet :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독일, 영국 및 이탈리아와 공동 운영)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고령자를 위한 사회 및 보건분야에서 노인간호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 노인간호 프로젝트는 노인간호의 기본단위를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빌라 타피올라에서도 위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지식, 기술 역량을 그대로 서비스에 적용시키고 있었다.



[운영현황 청취]



[방문기념촬영]



[안뜰 정원]



[목욕시설]

## □ 핀란드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 2006년 Kostianen 장관은 3가지 접근방안은 제시함

- 첫째,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이를 위해 퇴직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함
- 둘째, 고령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증가가 필요.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 가족정책, 일과 가정의 조화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을 제시
- 셋째,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 이를 위해서 환경정책, 주거와 근무환경, 도시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

○ 고령자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 최근 핀란드의 고령화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핀란드 정부도 이에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 이에, 정부에서는 자녀 부양 부담의 형평화, 가족복지(family welfare),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을 실천하는 한편, 소득 활동이 어려운 노령층에도 최저소득과 합리적 소비 수준, 충분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핀란드의 경우 지방세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재정부담은 지방 자치단체 70%, 정부 20%, 개인 10% 정도 부담하고 있음.
- 핀란드는 6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며 일반 국민연금 및 소득비례 지급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연금을 사용하여 홈케어 및 제공되는 주택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일반국민연금은 수혜자의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도(연금보험료는 사용자, 종업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당국이 분담)하는데, 매월 450~500유로 가량 지급한다. 소득비례 지급연금은 취업기간 및 취업 중 소득에 따라 지급되며, 봉급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연금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 공무원들은 소득액비례지급연금제도와 유사한 자체 연금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 독거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특화 서비스는 시에서 운영하고 않고, 노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문화유산 보존현장 시찰

### 원로원광장(대성당)

- 원로원 광장(대성당)은 1830년에 착공되어 22년만인 1852년에 완공되었으며, 각종 국가의 종교행사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며 광장 위쪽에는 카를 앙겔이 설계한 헬싱키 대성당이 있음. 돔을 축으로 한 좌우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처음에는 중앙의 돔 하나뿐이었지만, 앙겔이 죽은 후에 다른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작은 돔이 네 귀퉁이에 덧붙여졌다고 함
- 원로원 광장은 약 40만 개의 화강석이 깔린 조형미 있는 정사각형 광장으로 중앙에는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상이 위치하고 있음

---

## 시벨리우스 공원

---

- 시벨리우스 공원은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Jean Sibelius)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4톤의 강철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그 옆의 시벨리우스 두상이다.
- 핀란드의 대표적인 여류 조각가 엘라 힐투넨이 1967년 시벨리우스 사후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이며 은빛으로 빛나는 600개의 강철 파이프는 마치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 기념비와 시벨리우스 두상은 공원의 상징물이자 헬싱키를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

---

## 암석교회

---

- 템펠리아우키오(Tempeliaukion Kirkko)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 천연암석으로 된 독특한 디자인의 교회로 1969년 건축가 겸 디자이너였던 티오모와 투오모 수오마라이넨 형제의 설계로 하나로 된 화강암 언덕을 다이너 마이트로 깨고 파내고 다듬어서 터를 잡은 후 그곳에서 나온 돌로 부분 부분 담을 쌓고 지붕 사이에는 180장의 유리 창문을 사용하여 자연채광으로 아주 밝게 하였고, 터진 천장은 22km의 구리관을 이용해 덮었는데 이것이 울림 방지효과를 가져와 음향 효과가 아주 뛰어나 음악회장으로 자주 이용되며 주말에는 결혼식도 열린다고 함.

---

## 마켓광장

---

- 우리나라의 벼룩시장과 유사하며, 원로원 광장에서 항구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나오는 마켓광장은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싱싱한 채소부터 과일, 생선 등이 매일 거래되며 신선하고 값싼 생선이 많아 ‘피쉬 마켓(Fish Market)’ 이라고도 불린다. 바로 먹을 수 있는 훈제 고기로 간단하게 배를 채우거나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완두콩을 간식으로 먹으며 구경하는 것도 이색적이다. 가격은 할인이나 서비스가 없이 비싼 정가로 판매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시장과는 대조적이었다.



[판매부스]



[식료품 진열대]

### □ 핀란드의 도시계획

---

## 에코비키시

---

- 핀란드 헬싱키의 중심부에서 7~8km외곽에 위치하며, 전체면적은 100만km<sup>2</sup>이며, 주택, 상업커뮤니티와 헬싱키 대학의 시설 일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헬싱키시 당국에서 1998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헬싱키 어젠다 21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설한 도시이다.
-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성한 마을로 마을안에 자연그대로의

실개천이 흐르고 습지도 그대로 보존된 대표적 친환경도시이다. 주택의 80%는 시와 정부 소유이며, 임대분양 형식으로 마을단지에서는 자동차 주행이 금지되며, 건물 배치는 일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투명유리를 사용해 복사열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 북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도시는 물론 지방도시도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있었고, 거리를 가로지르는 광고물은 볼 수가 없었으며, 도심의 2층 이상 벽면에 돌출간판 등도 거의 없었다.

※ 가로등은 있지만 전신주는 없음

- (시사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 계획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이루어져야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살기좋은 도시를 가꿀 수 있음을 체감함. 또, 자연이 주는 혜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성급하기 보다는 오랜기간 협의와 합의점을 도출해 도시를 조성해야하며, 의회 특히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였다.

## IV. 시사점 및 발전방안

### □ 지방분권 및 옴부즈만 제도

- 스웨덴은 입헌군주제와 삼권분립주의를 취하고 있고, 2계층(two-tier)의 지방행정 조직을 통해 자치분권과 국가의 행정 분산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음. 각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 측면에서 자율성이 매우 높음
- ▶ 스웨덴 지방자치의 특성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권까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
-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오랜 시간동안 지방자치를 이룩한 노르웨이는 행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과 분권을 통해 행정을 지속시켜 왔음.
- ▶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예가 의회에서 임명한 옴부즈만에 의한 행정부 감시
- ※ 스웨덴 지방자치, 스톡홀름 시의회, 옴부즈만 제도

### □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지역자원의 활용

- 임실군의 핵심자원인 ‘옥정호’, ‘섬진강’, ‘성수산’ 등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로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보완
- ▶ 세계자연유산 보존의 사례처럼 가급적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하고 방문객들이 관심과 호응이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
- ※ 노르웨이 피요르드, 빙하박물관

### □ 핵심관광 거점 연계사업 개발

-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성수산 등 주요 관광 명소의 핵심거점

을 중심으로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고 콘텐츠를 집중

▶ 현장관람, 둘레길, 레포트를 통한 체험 등

- 임실N치즈축제와 같은 행사를 비롯한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읍 도심권을 연계하는 이동수단 개발 및 치즈상품, 음식 등 다양화를 통한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및 먹을거리, 즐길 거리 제공, 이를 통한 상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피요르드 유람선, 실야라인, 마켓광장

## □ 지역주민의 휴식처 제공 먼저

- 임실군은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레포트를 즐길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지 개발에 앞서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주민을 위한 레포트 및 휴식을 위한 시설, 공간 마련이 시급하며 여기에 관광콘텐츠를 가미하여 관광객 유치 상품으로 연계 가능

※ 북유럽 도심 스포츠 센터 활성화

## □ 친환경 도시정책

- 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공간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
- **환경파괴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함마르비의 도시건설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이용, 토양오염, 에너지, 물과 하수, 쓰레기, 건축자재, 운송수단, 소음, 친환경 공간 등 9개 분야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
- 도시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공간으로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

▶ 에너지자원 순환정책, 친환경 건축, 도시정책 공통기준 마련, 도시 전선의 지중화

※ 스웨덴 함마라비, 핀란드 에코비키시 도시계획

## □ 노인 복지정책

-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분담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효율적 연계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중요한 역할 담당, 다만 기초지자체의 조세결정권 등 복지역할이 매우 큼
  - ▶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원 분담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복지비용의 산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과 조세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과 투명성 요구
- ※ 핀란드 Villa Tapiola

## V. 연수후기

- (총 평) 이번 연수는 북유럽의 주요 3개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하여 각 국가의 일반현황과 행정제도, 의회운영 등을 습득하였으며, 특히 도시 개발 및 노인복지정책은 물론 문화관광자원 육성 등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향후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음.
-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그린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만년설이 점점 녹고 있는 현실을 인식함.
- 북유럽의 신재생에너지활용, 친환경 생태도시 계획조성 등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실천과 주민들이 적극 참여 하는 현장을 몸소 느끼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체계화되고 전문적인 도시 계획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음을 체득함.
- 북유럽의 복지정책 중 공평(equity)은 노인복지, 특히 치매노인 복지에도 적용되는데, 신체적 기능별, 생활수준별 정책 및 프로그램이 각기 다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수단에 큰 감동을 안겼다.
- 우리군의 노인복지관이나 마을 경로당 등 여가시설은 많지만, 북유럽의 경우처럼 소프트웨어 측면의 여가프로그램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대조적이었으며, 앞으로 핵가족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유럽의 노인복지정책과 유사한 프로그램

램 운영 및 신체적 기능별 재분류 수용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의원 연수 소감

### ① 김왕중 부의장

- 북유럽의 특수한 지방분권, 세금정책, 우수한 시민의식은 매우 본받을 만했음 선진국형 지방분권 문화의 정착이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지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확립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무한한 신뢰는 특권층을 부정하고 정치를 의무로 생각하여 참여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정치와 비교해볼 때 숙연하게 했다.
- 시민의식 보편주의, 정치인의 자세,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도 없었으며, 특권의식도 없었다.
- 북유럽 도시의 시청은 단순히 시청 건물의 기능을 넘어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 ②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

- 전북 도내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우리군과 유사하게 핀란드도 유럽내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은 가중 될 수 밖에 없었고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경제성장을 하락 및 복지 부담 증가로 이어져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유지,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촉진,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 촉진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복지 정책에서는 모든 국

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한다. 이러한 복지를 위해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원이 매우 투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공평과세의 시시비비가 없고, 불만이 없는 이유는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니 부러울 수 밖에 없었다.

### ③ 박영자 산업건설위원장

- 북유럽의 복지분야에 사전에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다. 노인 치매센터에 가서 보니, 잠자고 책보고, 샤워하는 등 1인 1실의 본인의 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히 지내는 노인들의 모습이 우리와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시설은 한 공간에 화장실은 있지만 샤워부스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북유럽 도시의 친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연보호를 최우선적 목표로 교통, 건축, 상하수도, 환경을 생각한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 ④ 진남근 의원

- 북유럽은 황사나 미세먼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반면, 우리는 좁고 인구가 많고 중국이 인접해 환경문제가 주위에 많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인지 북유럽의 도시들은 환경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실현하고 있었다. 방문했던 친환경도시들이 유명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불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왔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편리성보다는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쳐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5] 황일권 의원

- 연수기간 날씨가 쾌청하여 북유럽의 자연경관이 부럽기도 하였지만, ‘렛잇비’라는 노래처럼 훼손없이 자연 그대로 개발을 추진한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북유럽의 투명한 정치도 한 몫하여 천연자연을 잘 이용하고 지금의 부국을 만들 수 있었던게 더 큰요인이 아니었나 싶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발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경관 훼손은 참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다.
-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서는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가족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노인요양기관 방문을 통해 재인식되었다. 방문했던 연수국의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향상시키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이해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경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거친 과도기라 생각하며 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세계 일류의 복지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 6] 이성재 의원

-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중 국방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유럽의 지방자치처럼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서로 공

존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국방비 절감을 통해 복지나 친환경 측면의 예산 등에 쓴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 북유럽의 보편적인 국민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아쉽게 인적자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갈수록 젊은층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 북유럽의 복지, 특히 노인복지는 우리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혁신 정책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로푸키리(Loppukiri)의 사례처럼 은퇴자 천국을 목표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여느 요양원과 같은 노인 공동체 생활을 제안해 본다.

#### ㉑ 이명로 의원

-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북유럽국가들의 노인요양산업 현장과 노인복지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선진적인 요소를 우리 요양시설 현장에 적용하여 노인요양산업의 전문성 향상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노인요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해야 한다고 본다.
- 북유럽 도시는 동화 속 주인공, 공원, 구 시가지 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화하여 단순하지만 끊임없는 창조정신에 의한 관광상품개발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특히, 문화, 소설가 등 뛰어난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 천혜의 자연자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관광지로 개발한 사례로 플롬라인 산악열차, 전동차 등의 수단을 이용해 관광

의 재미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물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선진국형 국민성과 가치관 정립이 필수라 생각된다.